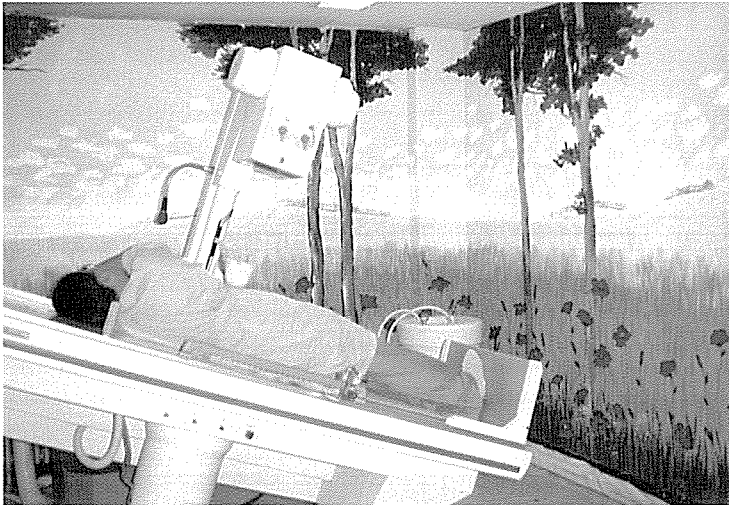


혼인 전 건강진단, 체력 진단실 운영 등 다양한 검진 실시

고객감동의 시대, 검진과 휴식이 함께 하는 공간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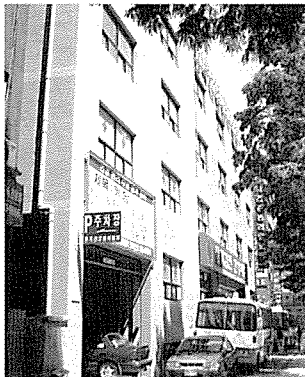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예방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질병을 감수하기보다는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보다 더 크고 현명한 사랑법이 또 있을까.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는, 바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랑·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혼인 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강서보건소로부터 혼인 전 건강 확인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한 서울지부는 자신의 건강 뿐만 아니라 2세의 건강을 위해서도 혼인 전 건강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혼인 전 건강진단은 고혈압·당뇨병·성병·에이즈·혈우병·풍진 등, 혼인 당사자나 가족에게 건강상 장애를 줄 수 있는 질환, 그리고 자녀에게 장애를 줄 수도 있는 유전성 질환 등을 사전에 발견해서 올바르게 대처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일. 무엇보다도 값진 혼수품이 아닐까요?』 건

◀6



▲ 강서검진센터



▲ 강북검진센터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 혼전건강진단부터

오 꼭백과 풍성한 가을. 비야호로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가 되고 행복을 다짐하는 결혼 시즌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10월 한달동안 주변 친지나 친구의 결혼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

잖게 분주했을 것이다.

문득 결혼과 건강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사실 사랑한다면 육체적인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협 서울지부 김성대 검진부장의 설명이다.

여성 건강진단 등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협 서울지부는 이외에도 연령별·계층별·분야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여성건강진단·특수(암)검진·일반종합검사 등을 비롯하여 의료보험조합·사업장·어린이·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건강에 관심있는 각 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골다공증 검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갱년기 여성질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검진의 편의나 신속·정확성 등으로 인해 30세 이상의 여성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체력진단실도 11월중 운영 예정

서울지부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체성분 분석 등의 건강진단, 개인의 체력진단, 심폐지구력 등의 운동부하검사와, 이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운동 및 영양처방을 할 수 있는 체력진단실도 곧 운영할 예정.

휴식이 함께 하는 공간

이홍량 사무국장이 최근 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김은경 원장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국민보건을 위한 중추적인 검진기관으로 자리한 서울지부는, 수검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즉, 정확하고 신속한 검진은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이제는 여기서 진일보하여 검진을 받는 동시에 바쁜 현대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 휴식을 함께 제공한다면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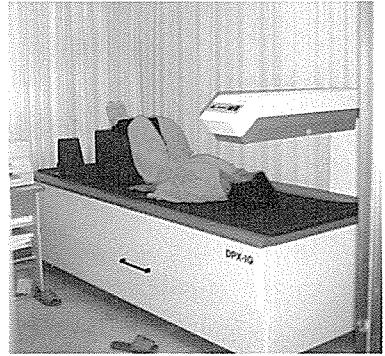
그래서 서울지부는 얼마 전 검진 시설을 대폭 수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검진업무를 시작했다. 내원자 대기실은 검진을 기다리는 수검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인테리어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동시에 질병관련 패널, 의자 배치, 잡지 및 영상매체 배치 등에 고심을 한 흔적이 현저하다.

특히 위장조영촬영실을 비롯한 일부 검사실은 벽면을 자연스러운 전면 그림으로 마감해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정신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KBS와 공동으로 건강관리 공개강좌 개최

건협 서울지부의 고객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월 2회 개최하여, 역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지부는 이중 한 번은 KBS라디오 '건강365'와 공동으로 KBS신관 라디오



공개홀에서 강좌를 개최하는 한편 그 내용을 방송(건강365 '일요건강강좌')하여 많은 사람들의 건강의식에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협회 강당 혹은 각 지역을 순회하거나, 강좌를 원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공개강좌를 실시하기도 한다. 원하는 단체나 지역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문의 02-601-7161~5).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초기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정기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해야 한다.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결혼 생활을 앞두고 혹은 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일. 현명한 현대인들의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4